



한글을 지킬 용기

울산가온고 1-5 김수연

- 아들에게 -

아들아, 너의 소식을 들었다. 그곳이 많이 춥고 외롭진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자랑스럽고 대견하구나. 나는 잘 지낸다. 「우리말본」을 읽으며 한글을 배우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. 사람들은 너의 숭고함에 감사하며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네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. 누군가는 일제에 맞서 한글을 지키는 네가 무모하다고 말하지만 넌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용기를 가졌다. 한글과 나라를 사랑할 용기. 일제의 탄압은 너의 용기를 더 자극할 뿐이고 그 누구도 너를 막을 순 없다. 그뿐만 아니라 너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할 용기를 가졌다. 네가 포기한 것들은 한글을 지키겠다는 신념에 동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니 나는 너의 선택을 지지하지 아니할 수 없구나. 너의 노고가 빛을 발휘해 우리 나라가 자유로워지고 당당하게 한글을 쓰고 배울 수 있는 날이 온다면... 그런 날이 온다면... 우리 한식구 상에 둘러앉아 밥이나 한 끼 하자구나. 너의 붓 자국이 후손들에게는 배움과 가르침이 되어

우리나라를 밝혀줄 것이고 너의 용기는 후손들의 정신이 되어 길이 기억될 것이다.

너의 목숨은 한글이라 하지만 엄마의 목숨은 오직 너 하나다. 그러니 부디 건강하게 돌아와 주길 바란다. 항상 보고 싶은 내 아들... 사랑한다.

- 엄마 -

